

# 전국 행복단체장, 전주서 머리 맞대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 2차 회의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려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 10월로  
예정된 협의회 창립준비사항 등 논의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영태영 수원시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 맹정호 서산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이지훈 국민총행복포럼 운영위원장은 29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가칭)' 구성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6기 출범이후 모든 시민들이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사람·생태·문화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키워 시민들이 행복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담론의 장인 행복경제학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아침밥을 굶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등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선출된 김승수 전주시장 여·야 자치단체장 등 12명의 준비위원들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협의회 창립을 위한 주요 준비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 단체장들은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준비사항, 협의회 운영계획 등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준비위원들은 이날 △행복지표 공동개발(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등) △분기별 정기 행복정책포럼 개최 △행복 관련 국제회의 개최 △회원 지역 행복정책 현장 견학 등 행복과 관련한 협의회의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또 협의회 명칭과 조직체계 등 협의회 창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뤘다. 협의회는 이어서 오는 10월 17일에는 임원선출과 창립선언문 채택, 브루노 프레이(Bruno S. Frey)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의 기초강연, 해외 행복전문가들의 사례발표 등 행복학박람회 참여한 전국 39명의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앞으로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시민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아닌 배려가 삶의 뿌리에 흘러 모든 사람이 행복을 실감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AFC챔피언스리그 8강전 1차전 경기를 함께 관람했다. /송효철 기자



농식품의 새로운 품종 28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2018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 대회'에서 리승용 농촌진흥청장과 직원들이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들을 살펴보고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성 기자

## 남원시 다문화어울림축제 개최

제11회 다문화어울림축제가 29일 남원시 사랑의 광장에서 다문화가족과 도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관련기사14면〉

지난 5월 다문화주간에 도민들과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화합분위기 조성에 힘입어 이번 다문화어울림축제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도민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김진성 기자

## 내달 4일 전북도 중장년·시니어 일자리박람회

50개 기업 채용부스 · 총 250명 이상 채용키로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장년에게 재취업의 희망을 주고자 2018년 중장년·시니어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9월 4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중장년·시니어 일자리박람회는 '다시 뛰는 내 일(my job), 희망찬 내일!'이라는 주제로 베이비부머 등 가장세대의 퇴직증가에 따른 재취업 지원과 연령제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리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된다. 중장년 구인기업 채용관을 중심으로 취업컨설팅관, 창업컨설팅관, 부대관 등 80개의 부스를 설치해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며, 채용관은 전략산업관·농식품관·문화관광관·물류관리관 4개관으로 구분하여 구직자들이 다양한 관심분야의 채용관에 접근을 쉽게했다. 이번 2018년 중장년·시니어 일자리박람회'는 50개 기업이 채용부스를 꾸려 구인에 참여한다. 총 250명 이상

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중 80%이상의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고 행사장에 오면, 바로 서류전형에서부터 면접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2018년 중장년·시니어 일자리박람회'는 전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www.1577-0365.or.kr>)를 통해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1577-036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 文대통령 “공기관, 민간·공공 가교역할 중요”

“국민신뢰 받는 기관 환골탈태…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야  
공공성 강화가 혁신 첫걸음…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이렇게 밝힌 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공공기관 워크숍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사 참석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3가지 경제정책 기조 실현에 모범적으로 움직이기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혁신 작업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그를 통해 민간의 영역까지 혁신의 기조가 번져나가기 기대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

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고 공공기관 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채용과 임용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묶어매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 1년여간 여러 자성의 노력들이 있었다. 정부부터 변화를 시작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고,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하고 나섰다”고 공공기관 중심의 변화 분위기를 소개했다. 채용비리 근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노력들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국민 곁으로 돌아와줬다는 공공기관들의 굳은 결의가 느껴진다”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출발점에 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

대도 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얼마전부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며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른바 아주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의 민관 가교역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 사업을 늘렸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재개여부 “논의된 바 없어… 긴밀 협의”

국방부는 현재 중단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여부에 대해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있어 진척을 보이지 않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마저 취소되면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에 해석될 수 있다. 매티스 장관은 “몇몇 훈련이 중단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의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민와(대통령이) 지시한다면(중단)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연합훈련 유예와 관련해 한미 간의 기존 합의의 연장선상”이라며 “한미가 연합훈련을 유예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연합훈련 추가 유예나 재개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훈련 유예나 재개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